

장애인 돌본 척 29억 ‘꿀깍’...화순군 자활센터 46명 쇠고랑

‘재가 요양 서비스 제공’ 근무기록 허위 작성 혈세 빼돌려 범행 주도 A씨, 보조금 나눠먹기 과정서 절반 가로채기도

장애인 집에 찾아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29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순군 자활센터 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정부 정책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지원금이 대거 빼졌다가 반대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생겨 피해를 받는 일이 생긴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화순경찰은 장애인 요양 보호 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 국고 보조금법 위반 등)로 화순군 자활센터 관계자 2명과 요양보호사 44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화순군 자활센터 총무팀장 A(38)씨와 장애인

팀장 B(55)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재가 장애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조작해 국고보조금 29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또 요양보호사 44명도 이들과 공모해 허위 근무 기록을 통해 가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보조금을 가로채 부당 수익을 나눠가진 혐의로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요양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요양보호사의 휴대용 단말기에 장애인의 전자 바우처 카드를 찍어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에서 위치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을 “군청에서 시킨 일이다”, “원래 절차가 그렇다” 등의 말로 속여 이들의 장애인 전자 바우처를 회수해 한 번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허위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직원 1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한 A총무팀장은 허위 기록으로 일괄 지급받은 보조금을 요양보호사의 차명 급여 통장에 이체하는 과정에서 절반 가량을 빼돌려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화순군이 공무원을 자활센터장으로 파견해 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화순군의 감독이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게 됐다. 경찰은 해당 자활센터 대표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자와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 1월 지역 자활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를 진행했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제공돼야 할 요양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막대한 혈세를 가로챈 중대 범죄 행위로 보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엄정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암 꿀고구마 수확 10일 오전 영암군 도포면의 한 고구마 밭에서 농부들이 수확에 한창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을 늦더위 씻는 비...기온 4~5도 하강

광주·전남 오늘까지 20~60mm 오늘 새벽 돌풍·천둥 동반 비

11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뒤 가을 늦더위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일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 20~6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비로 낮 최고 29도 안팎의 기온의 늦더위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1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11일 최저기온이 10일보다 2~4도 내려간 14~20도, 일 최고기온은 18~21도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비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11일 새벽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일 최저기온은 15~19도, 일 최고기온은 21~24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13~16일 아침 기온은 13~18도, 낮 기온은 20~26도로 지난주에 견줘 4~5도 낮아지겠다. 특히 이번주 말부터 최저기온이 10도 이하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선선하다 못해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는 18일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 아침기온이 6~13도 이하로 내려가 쌀쌀하고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기선 전 GIST 총장 다시 총장직 복귀

법원, 가처분 인용

김기선 전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이 직위 해임된 지 석 달 여만에 다시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따른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전 총장이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낸 총장 해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가 총장을 임의대로 해임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지난 6월22일 이사회에서 해임 의결된 지 108일 만이다. 김 전 총장은 9일부터 총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연구수당 부정 수령 등을 둘러싸고 노조와의 갈등이 고조됐던 지난 3월 과기원 홍보팀은 ‘총장 등이 최근의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 배포 직후 김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사회가 결국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용하자 지난 4월5일 법원에 “이사회 결정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또 다시 해임안을 의결하자 김 전 총장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날 두번째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교육정책 제안 공모

광주교육청, 15일까지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5일까지 교육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 친환경 미래 교육 강화 방안 ▲효율적인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학생, 학부모, 시민 등 교육주체 간 소통을 통한 교육협력자치 활성화 방안 ▲기타 광주교육 발전 방안 등이다. 광주시민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국민신고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로그인해 국민제안→공모제안→기관선택(광주시교육청)을 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12월 중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공지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

“수능 끝난 뒤 ‘위드 코로나’ 국민청원

청원인 “11월 9일 시작 땀 확진자 증가...18일 이후로 미뤄야”

정부가 내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위드 코로나 시작 시점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뒤로 미뤄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한 시민은 지난 8일 ‘위드 코로나 시기를 수능 뒤로 미뤄주세요’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11월 9일쯤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11월 18일이 수능이므로 열흘 정도나 미뤄주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11월 둘째 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를 시작해볼 수 있다고 말했으나 체계 전

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원인은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분명히 확진자가 증가해 지금껏 애써 준비했던 수능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위드 코로나 개시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2022학년도 수능은 11월 18일 시행되며 고등학교 3학년생 등 대입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마쳤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튼튼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